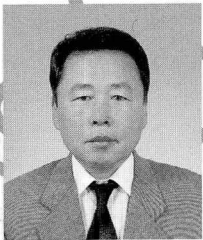


늦장마

A late rainy season the rainy spell in late summer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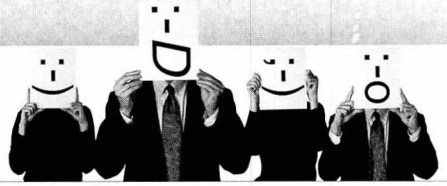
금년 여름 장마가 시원찮은 듯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추석 며칠 전까지 비가 내려 농심을 썩이고 있었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 들녘을 바라다보니 이전의 황금빛이 아니고 푸른빛이 감돌았는데, 이도 비가 자주 왔기 때문이라 한다.

제주와 호남지방에서는 큰 피해를 입혔는데, 특히 제주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하루 최대 강우량을 기록 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오리사육 농가가 많은 호남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면으로나마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장마는 태풍을 동반하여 오는 것으로서, “북태평양 동부, 대서양, 멕시코와 카리브해에서 발생하여 북아메리카로 불어오는 태풍에 해당하는 열대 저기압은 허리케인(hurricane)이라 하며, 인도의 벵골 만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은 사이클론(cyclone)이라 한다”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다. 독자분들도 외국영화 속에서 허리케인 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필자는 군복무를 공군에서 항공관제사로 했기 때문에 기상과는 뿔래야 뿔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안개나 비가 올 때는 시정(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을 계속 확인하여야 했기 때문에 제한 기상 관측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비는 늦장마가 아니고, 국지성 호우라는 말도 있고 “결국 장마 이후에 더 많은 비가 왔으므로 늦장마 아니냐”는 말도 있다.

아무튼 정확히 예보를 못한 기상당국의 실수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축산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있다.

세계각국과의 FTA를 비롯하여, 여름엔 많은 비, 태풍, 낙뢰, 겨울엔 폭설 등의 난제가 널려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축사를 선정할 때 웬만큼 비가와도 침수될 위험이 없는 지역을 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게다가 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메탄가스 발생 또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 사망자의 40%가 환경오염이 원인이라고 하며, “의학잡지 circulation에 실린 루벤 카톨릭 대의 ben nemery박사 논문에 따르면 공기오염에서 발견되는 크기와 같은 작은 입자가 사람의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24세에서 47세사이의 비 흡연 남성들에게 방사성 동위원소 입자들을 들이 마시게 하고 흡입 직후 신체 스캔을 실시하여 입자들이 폐에서 혈액, 간,

방광과 같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적·관찰 하였는데, 방사성 활성도는 1분 후에 이미 혈액에서 감지되었고 10분에서 20분 사이 최대에 도달하였고 60분까지 이 수준으로 유지되었다”.([http:// www.medicalstory.com](http://www.medicalstory.com))는 기사와 같이 각종 공해에 문혀 사는 우리들로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 찾는 풍조가 웰빙, 로하스 등을 통하여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우리가 살길이 있다.

우리가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지내고도 한가위에 벌어진 갖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정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유난히 심했던 교통체증으로 귀성길이 힘들었다는 기억과, 그래도 긴 빗줄기 속에서도 한가위만큼은 덩그런 보름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잦은 비로 인해 농장일을 두, 세 배 힘들게 해야만 하는 농가들의 수고로움과 계절적으로 이맘때면 출하가 지연되어 속을 끓이는 가족들의 우울함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절 때에 잘 나가지 않는 품목을 벗어나, 명절 때면 품귀가 되어 귀한 대접을 받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리훈제 선물세트나 오향 오리 등으로 다양화해서 홍보를 잘해, 그것이 일반 마트나 할인매장 등에 많이 보였으면 하고, 명절이면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전통풍습인만큼 좋은 오리제품을 명절 선물세트로 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